

2018년 10월 1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일부 기술주 제외 하락세 지속

달러 약세, 미 국채금리 하락, 일부 반도체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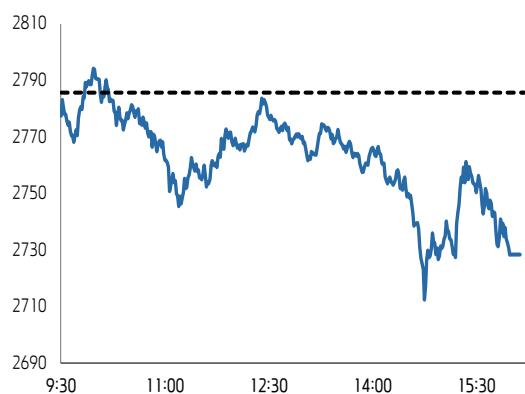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하락폭을 축소하기도 했음. 특히 마이크론(+0.87%)이 AI 업체에 1 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 다만, 여전히 3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하며 하락세를 이어감(다우 -2.13%, 나스닥 -1.25%, S&P500 -2.06%, 러셀 2000 -1.91%)

미 증시는 ①일부 반도체 업종 강세 ②국채금리와 달러 약세 ③대부분의 업종 하락 지속 등의 특징이 있었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 하락. 그러나 마이크론(+0.87%), 마이크로칩 테크(+1.90%) 등 일부 반도체 업종은 강세를 보였음. 마이크론의 경우 전일 CEO 가 “반도체 시장은 데이터 서버가 등장하고 자동차 산업과 연계되는 등 변화하고 있다” 라고 주장. 이와 함께 AI 신생업체에 1 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투자의 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상승. 마이크로칩 테크는 IoT 관련 보드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강세.

한편,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 9 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2%에 그치는 등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10 년물 국채금리가 3.15% 하회. 더불어 매파적인 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라고 주장한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달러화도 물가지표 둔화 및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가 기업을 어렵게 한다” 라고 주장하자 약세. 더불어 브렉시트 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며 유로화 및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 약세 요인. 그러나 미 증시는 이러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확대. 여전히 3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부담이 투자심리를 위축되게 만들었음. 장 마감을 앞두고는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던 기술주 위주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출회되며 한때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컸던 하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29.67	-4.44	홍콩恒生	25,266.37	-3.54
KOSDAQ	707.38	-5.37	영국	7,006.93	-1.94
DOW	25,052.83	-2.13	독일	11,539.35	-1.48
NASDAQ	7,329.06	-1.25	프랑스	5,106.37	-1.92
S&P 500	2,728.37	-2.06	스페인	9,007.90	-1.69
상하이종합	2,583.46	-5.22	그리스	626.86	+0.16
일본	22,590.86	-3.89	이탈리아	19,356.61	-1.8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일부 기술주 상승

마이크론(+0.87)은 AI업체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로칩 테크(+1.90%)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호환성이 높은 IoT 보드를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알파벳(-0.13%)은 장종 공화당 상원의원이 Googl + 소셜네트워크 관련 보안 위험 공개를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장종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페이스북(+1.30%)은 일부 에널리스트가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프리포트 맥모란(+3.60%), 뉴몬트 마이닝(+7.07%) 등은 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엑손모빌(-3.45%), 코노코필립스(-3.06%), 세브론(-3.40%)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아마존(-2.04%), 월마트(-1.92%), 타겟(-2.82%) 등 소매 유통업체와 암젠(-3.65%), 길리어드사이언스(-3.05%) 등 바이오 업종은 실적 가이드스 하향 조정 우려감이 이어지며 하락 했다. JP모건(-3.00%), BOA(-3.01%)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12%	대형 가치주 ETF	-2.76%
에너지섹터 ETF	-2.51%	중형 가치주 ETF	-2.22%
소매업체 ETF	-1.17%	소형 가치주 ETF	-2.29%
금융섹터 ETF	-2.98%	배당주 ETF	-2.47%
기술섹터 ETF	-1.27%	변동성 ETF	+8.44%
소셜 미디어업체 ETF	+0.46%	대형 성장주 ETF	-1.70%
인터넷업체 ETF	-0.88%	중형 성장주 ETF	-1.72%
리츠업체 ETF	-2.93%	소형 성장주 ETF	-1.59%
주택건설업체 ETF	-1.58%	신흥국 고배당 ETF	-1.49%
바이오섹터 ETF	-2.00%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3%
헬스케어 ETF	-2.70%	하이일드 ETF	+0.26%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16%
반도체 ETF	-0.88%	Long/short ETF	+0.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8.87	-3.09%	-5.73%	-0.73%
소재	336.06	-1.20%	-7.73%	-9.61%
산업재	618.11	-2.28%	-7.37%	-6.13%
경기소비재	847.38	-1.70%	-6.29%	-9.02%
필수소비재	536.41	-2.32%	-2.62%	-4.50%
헬스케어	1,038.71	-2.66%	-4.99%	-4.04%
금융	438.73	-2.93%	-6.06%	-5.43%
IT	1,205.14	-1.27%	-7.94%	-8.12%
커뮤니케이션	149.02	-0.84%	-6.05%	-6.41%
유틸리티	268.63	-1.97%	+0.22%	-2.27%
부동산	190.77	-2.91%	-2.87%	-8.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매수세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2.11% MSCI 신흥 지수도 1.01% 하락 했다. 1% 가까이 상승하던 야간선물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2,763 계약)에 힘입어 0.55pt 상승한 276.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5.0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이 부담이었다. 한편, 마이크론이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일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미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을 찾고, 달러화 또한 약세를 보인 점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전일 중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트럼프 또한 11 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언급 하는 등 무역분쟁 긴장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전일 이강 인민은행장과 므누신 미 재무장관,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회담을 가지는 등 대규모 관세 발효 이후 양국 주요 지도부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 된다.

한편, 오늘 장중 중국의 9 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된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발효 이후 통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지난달(yoy +9.8%) 보다 둔화된 전년 대비 8.9%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 또한 지난달(yoy +19.9%) 보다 둔화된 전년 대비 1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대미 수출입 통계이며 이 결과가 무역분쟁 이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 상승 압력 낮아짐

9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3% 상승 했다. 이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 한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2% 상승에 그쳤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0 만 7 천건) 보다 증가한 21 만 4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청구건수도 지난주(20 만 7 천건) 보다 증가한 20 만 9,500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약세, 미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EIA가 지난주 원유 재고에 대해 시장 예상치(262만 배럴 증가)보다 많은 598.7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가솔린 재고 또한 95.1만 배럴 증가한 점도 부담이었다. 한편, OPEC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원유 수요 증가율을 8만 배럴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이었다. OPEC은 세계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잠재적인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신흥국의 수요 감소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제유가가 3% 급락은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물가지표가 둔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이슈가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영국 메이 총리는 '전시 내각'을 소집해 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인 EU 관세 동맹 잔류안에 대한 설득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도 파운드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유로화도 경제지표 개선 및 브렉시트 협상 타결 기대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도 0.8% 강세를 보여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고시 가능성을 높였다.

미 국채금리는 9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2%에 그치는 등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10년물 국채금리가 3.15% 하회했다. 더불어 매파적인 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한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3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0배)보다 강한 2.42배를 기록한 점 또한 금리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및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9%, 철근도 1.1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0.97	-3.01	-4.52	Dollar Index	95.006	-0.53	-0.78
브렌트유	80.26	-3.41	-5.11	EUR/USD	1.1597	+0.67	+0.72
금	1,227.60	+2.87	+2.16	USD/JPY	112.09	-0.16	-1.60
은	14.606	+1.95	+0.11	GBP/USD	1.3238	+0.32	+1.67
알루미늄	2,020.00	-1.32	-6.89	USD/CHF	0.9895	-0.06	-0.22
전기동	6,242.00	+0.05	-0.76	AUD/USD	0.7122	+0.95	+0.65
아연	2,606.00	-0.87	-1.81	USD/CAD	1.3028	-0.31	+0.80
옥수수	369.25	+1.79	+0.48	USD/BRL	3.7803	+0.64	-2.45
밀	508.00	-0.49	-1.93	USD/CNH	6.8742	-0.72	-0.32
대두	858.25	+0.70	-0.12	USD/KRW	1144.40	+0.92	+2.25
커피	112.90	+0.89	+5.56	USD/KRW NDF1M	1135.07	-0.68	+0.1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44	-1.88	-4.29	스페인	1.641	+3.10	+8.10
한국	2.365	-4.50	-1.00	포르투갈	2.014	+5.70	+10.70
일본	0.146	-1.00	-1.30	그리스	4.472	+3.20	+0.50
독일	0.518	-3.40	-1.30	이탈리아	3.561	+5.80	+23.60